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실무자 간담회

2019.9.20.(금)
10:00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2019. 9. 20.

금 용 위 원 장
은 성 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님을 비롯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외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포용금융 정책을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거나
실적쌓기용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처럼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II. 향후 포용금융 정책과제

다만, 포용금융과 서민금융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반성,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와 환류 과정을 통해 포용금융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팀워크를 위해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몇 가지 공유해 볼까 합니다.

1. 안정적 재원확보와 상품체계 정비

포용금융 관련 정책현황을 처음 접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각 상품별로 고유한 출시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각각 단편적으로 접근(piecemeal approach)해 온 한계로서 전체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러 상품들이 같은 계층에게 중복 지원을 하는 반면, 어떤 상품도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 자원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민들 중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로 상실감을 유발하지는 않았는지도 우려됩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상품의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서민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두 번째로, 개별 사업들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정한 대출공급 목표를 달성했다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 시각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상품별로 실제로 어느 계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재원 부담자와 정책 수혜자 간
비용과 편익의 부담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달체계 개편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개편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5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올해말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달체계는 센터 구축을 통한
하드웨어적 접근의 편의 뿐 아니라

접근채널의 다변화, 내실 있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추천, 사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콘텐츠 개발도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¹·인터넷²·모바일³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금리·한도 면에서 최적 상품을 추천해주는
맞춤대출서비스(舊 '이지론')는
접근의 용이성과 기능적 우수성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1)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2) 맞춤대출(<http://loan.kinfa.or.kr>), 3) 모바일 앱(19.12월 예정)

마침 대출연계 플랫폼 관련 핀테크 산업도 성장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과 연계'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전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III. 마무리 말씀

포용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민자금 지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등
서민금융은 포용금융의 중추로서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국민들이 포용금융을 접하고 바라보는 창(window)인 만큼,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 일 같이 함께 고민하는
진정성 있고 따뜻한 마음과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까지 포용금융 정책들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색과 무늬를 입혀 나갈지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멋진 그림을 완성해 나갑시다.